



“시민들에 감동 전하는 새로운 스타일 무대 선사할 것”

●임창은 광주시립합창단 신임지휘자

“사람의 목소리로 완성되는 하모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휘자로서 가장 큰 역할은 단원들이 지닌 역량을 끌어주고 이들의 조화를 돕는 것이죠. 관객들에게 최고의 합창 무대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합창단 기량·재미 갖춘 10월 취임연주회 준비 만전 모든 세대 함께하는 공연 및 ‘모닝콘서트’ 등 구상도

16일 만난 임창은 광주시립합창단 신임지휘자는 소통과 열정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합창 무대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는 10월18일 펼쳐지는 197회 정기 연주회는 임 지휘자의 취임 무대다. ‘이 시대의 위대한 합창 작품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동시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들려줄 예정이다. 1부는 바이올린 솔로·퍼커션이 함께하는 여성합창곡을 비롯해 네 대의 템버린이 함께하는 8성부 합창곡, 피아노 즉흥연주·스트림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올라 아이일 합창곡 등 전문합창단으로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다.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5가지 언어의 입맞춤’을 주제로 하는 시대·나라별 합창곡, 리듬감 있는 타악기 협연 합창곡 ‘Swing’s the Thing’ 등 귀에 익숙한 곡들도 무대에 오른다. 모두의 평화를 기원하는 크레이그 헬러 존슨의 ‘All of Us’ 곡은 마무리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음악적으로 다양한 느낌을 지닌 곡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관객들은 편

안하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단원들은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겁니다. (웃음) 관객 호응을 유도하는 재밌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임 지휘자는 12년 간 상임지휘자로 춘천시립합창단을 이끌어온 바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춘천 시민 참여형 합창축제 ‘은세대 합창 페스티벌’은 그가 오랜 시간 일궈낸 결과물이다. ‘은세대’라는 말처럼 프로그램에는 부모나 조부모, 아이들이 함께 한다. 경쟁의 형태를 띠는 대부분의 합창 축제와는 달리 시립단원 등을 멘토로 삼아 10주 간의 연습을 거쳐 무대를 올리는 방식이다. “13팀으로 시작했던 페스티벌이 8회째인 올해 86개팀으로 늘었어요. 지역 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거죠. 경쟁사회로 향하는 이 시대에 ‘합창’이라는 음악 장르가 갖는 공동체 의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완벽한 화음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맞춰 나가는 합창은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휘자로서 나름의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임기 동안 임 지휘자는 이같이 세대 간 이해와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구상, 추진할 계획이다. “저는 시립합창단이 음악적인 깊이를 갖추면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연을 했으면 해요. 관객 눈높이를 맞추며 이들의 예술적 감각 또한 높일 수 있는 무대를 펼쳐가고 싶습니다. 오는 11월에는 단원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모닝콘서트’도 대극장 로비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음악회 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사회의 관심, 단원들의 의지, 지휘자의 아이디어와 노력,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는 것입니다.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여정이 매우 기대됩니다.” /최명진 기자



현대적 시각으로 만나는 명작 동화

뮤지컬 ‘삼양동화’…내달 10-11일 ACC 어린이극장

“고전 동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바꾼 명작동화 뮤지컬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년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 ‘벤틱 플레이’ 두 번째 작품으로 다음달 10-11일 이틀 동안 ACC 어린이 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뮤지컬 ‘삼양동화’를 선보인다. 2021년 창단한 예술단체 ‘해의 아이들’이 기획한 ‘삼양동화’는 2022년 아시테지 겨울축제 대표 공연 선정, 제30회 서울어린이연극상 관객인기상 수상 등을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 받았다. ‘삼양동화’는 고전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을 ‘헨젤과 새엄마’로, ‘백설공주’를 ‘겨울을 깬 왕비’로 각각 각색한 작품이다. 기존 동화 속에 숨겨진 차별

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바꿨다. 모험을 통해 한결음씩 가까워지는 헨젤과 새엄마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야기,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왕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또 이번 공연은 관객들과 삼양동화 주제가를 부르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참여형 뮤지컬로 구성됐다. 어린이 관객과 원작 동화의 차이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생각하는 월드 키워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다음달 10일과 11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등 총 4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천원이다. 3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ACC재단 누리집예매. /최명진 기자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 토크콘서트…19일·내달 8일

그시절 사랑했던 노래·극장 들여다본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진행 중인 특별전 ‘광주가 사랑했던 [] 그리고 한류’와 연계해 광주의 대중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는 19일과 8월8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의 노래·극장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 연계 토크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크콘서트는 전시 4부 내용인 ‘광주의 극장 문화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광주의 대중문화를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오는 19일에 열리는 1회차 ‘광주의 노래 이야기’에서는 지역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최유준 전남대 교수, 주광한 국방방송DJ협회 이사과 함께 광주의 시대를 담은 노래들과 잊혀진 전일방송(VOC) 대학가요제의 기억을 되살

린다. 시대별 광주의 노래를 통해 광주인과 타지 사람들 시선으로 본 광주를 살펴보고, 1980년 5월의 아픔을 어떤 노래로 승화했는지 알아본다. 다음달 8일에는 2회차 ‘광주의 극장 이야기’가 진행된다. 1935년 이래 89주년을 맞이한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사라져간 광주의 극장들을 만나본다. 호남·광주 극장 문화를 꾸준히 연구해온 위경태 전남대 교수, 광주극장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김형수 광주극장 전무이사와 함께 당시 광주의 극장과 영화를 사랑한 지역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들어볼 수 있다. 토크콘서트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참가비 무료. /최명진 기자

전국 춤꾼 모여 끼! 매력! 발산



제6회 광주 광산구청장배 생활무용전국대회가 지난 13-14일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및 첨단 시너지 타워에서 열렸다.

제6회 광산구 생활무용전국대회 성료…스트릿댄스 퍼포먼스 대상에 ‘락앤롤 크루’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산구생활무용협회(회장 이현남)가 주관하는 제6회 광주 광산구청장배 생활무용전국대회가 지난 13-14일 양일간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및 첨단 시너지 타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13일 수완호수공원에서 열린 스트릿댄스 퍼포먼스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본선 2팀 약 200여명이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14일 첨단 시너지타워에서 열린 스트릿댄스 11배틀 경기에는 전날 참여했던 전국 단위 참가자들과 광주지역

춤꾼 등 200여명이 모여 대회를 치렀다. 수상팀으로는 13일 대상팀 락앤롤 크루(한지혜 외 17명), 스트릿부분 최우수상 노립(박종혁 외 10명), 케이팝 부분 최우수상 새내기(조가현 외 5명)가 선정됐으며, 14일 배틀대회에서는 김두남(aka two), 세권위너 장현우(J

ay)가 영예를 안았다. 한편 공연을 주관한 광산구생활무용협회는 생활 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10개 클럽 4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스트릿댄스, 재즈댄스, K-POP, 밸리댄스, 라인댄스 등 삶의 활력소가 될 생활무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